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9



▶한줄요약
어느 날부터인가 금어스님은 부처님을 그리지 않고 칼만 그리기 시작했다. 암자에 불이 나고 그날 금어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스리나가르로 떠났다. 과연 그날 암자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조실스님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암자에 불 나던 날, 과연 무슨 일이…

뉴델리에서 며칠 ①

-부처님을 그리지 않고 칼만 그린다고 하여 아들이 설마 제 아비가 들어 있는 암자에 불을 질렀겠소.

그렇지요? 하는 말이 나오려다가 꿀꺽 넘어갔다.

-사실 누구에게 이런 말도 못 한다오. 칼이나 그리는 금어를 우리들의 시주로 받들었느냐고 할까 봐….

-그럼 종정 예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다시 묻는 내게 조실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드렸다오. 요즘 들어 이지안 금어가 이상하다고. 그리라는 부처님은 그리지 않고 칼만 그리고 있다고.

-그때 스리나가르에 있는 성물을 그린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렇소. 그런 것 같다고 했었소.

역시 싶었다. 종정 예하의 꿈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분명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조실을 향해 물었다.

-그때 이지안 금어스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심 작가였다.

-아마 예순 여덟아홉은 되었을 게요. 이곳에 계실 때 신도님들과 농담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렇군요. 그럼 고향은요?

이번에는 눈을 빛내고 있던 오오스마 기자가 물었다. 사원을 들락거리면서도 정작은 그의 고향조차 물어보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그러고 보니 올 때마다 박대당했거나 성실히 답을 해주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나서니까 얼씨구나 하고 달라붙은 것이 분명하다.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그를 앞장세워왔으니….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조실스님의 말을 기다렸다.

-고향은 모르오. 절간의 문화가 그렇지 않소. 세간에서 어떻게 살았든 그게 무슨 소용이오. 더욱이 그 양반은 기회가 있어도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는 원체 말이 없던 사람이었다오. 본시 지금의 종정 예하의 시봉이었는데 뒤늦게 심기일전하여 불화를 그리는 금어로서 일가를 이루었다고 알고 있소.

-그들이 머물던 곳에 양식을 가져다주곤 하셨다는데 그 전에 뭐 이상스러운 것을 발견했거나 느끼신 것은 없는가요?

말이 길어질 것 같아 내가 잘라 물었다.

-글쎄? 아,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나는구먼. 언젠가 한 번 가보니 이곳에 한때 주석한 적이 있는 정우 스님의 딸이 올라와 있었소. 그 양반이 있는 방을 기웃거리는 게 영 느낌이 좋지 않았소. 그땐 한밤중이었고 그 양반은 그림에 몰입해 있었는데 열린 문틈으로 방 안을 쳐다보고 있는 처자의 눈빛이 마음에 걸리긴 했다오. 그날 그곳에서 묵고 다음 날 나오면서 제가 왜 돌아가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공양주가 사가에 두고 온 딸이라면서 가라고 해도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하더만요. 그때 알았지. 정우 스님과 공양주 사이에 난 딸이라는 걸.

-방금 딸이라고 했는데 그럼 공양주와 함께 들어왔겠군요?

-아니요. 정우 스님이란 분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온 처자였소. 본시 조계 비구였는데 공양주와 눈이 맞은 모양이오. 공양주가 기르던 중 딸이 아비라고 찾은 모양인데 그래서 그 딸 데리고 이곳으로 나온 거 같소. 이곳에 데리고 있기가 뭐해 마을에 방을 얻어 주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소.

-왜 금어스님의 방을 기웃거렸을까요?

-지안 스님이 하도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하던 양반이라 관심이 있었을 테지.

-지안 스님의 방을 기웃거린 건 금어스님의 아들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문득 금어스님의 아들이 생각났는지 송 서화가가 말했다. 조실스님이 그것도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눈을 감았다. 그뿐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실스님은 더 이상 입을 열 기색이 아니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목 밑에 좀 전부터 걸려 있는 말을 내뱉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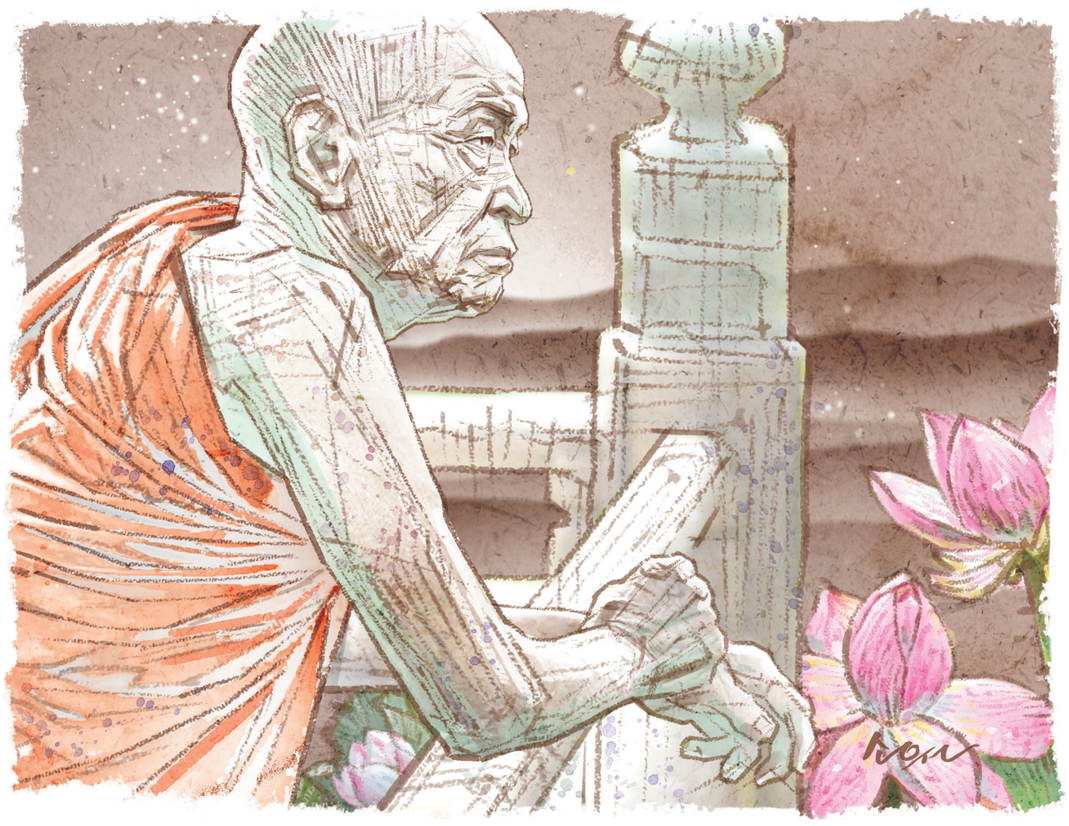
-이지안 금어스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날의 상황을 듣다 보면 아들이 아버지가 든 암자에 불을 질렀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물었다. 조실은 눈을 감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입을 열었다.

-물론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오.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소.

그렇게 말하고 조실은 그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이었다.

그날 조실은 시자를 데리고 언제나처럼 이지안 금어가 있는 암자로 올랐다. 시내에 갔다 오는 길이었다. 천추사원을 짓기 위해 이 암자를 먼저 지었다. 머물 곳이 마땅찮았기 때문이었다. 사원을 지으려면 창고가 필요할 테고 일꾼들 숙소와 밥 먹을 곳이 필요할 터인데 마땅한 곳이 없었다. 천추사원을 짓기로 발원할 때부터 이지안 금어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그의 작업실 또한 필요할 것이었다. 타국이다 보니 뭐 하나 수월한 것이 없었다. 먼저 인도로 들어온 이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암자를 먼저 짓고 사원을 짓는 데만 두 해가 걸렸다. 사원 건축은 일반 건축과는 다르다. 초석 하나를 놓아도 격식과 규칙이 있다. 전문적인 인력이 인도에 있을 리가 없다. 더욱이 조선식 사원 건축의 장인이 있을 리 없다. 한국에서 모셔 와야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었다.



어렵게 사원을 지었다. 이지안 금어는 아들과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곳에 들어와 있었는데 자신이 거처할 암자를 거의 손수 짓다시피 했다. 그래서일까? 탱화 작업이나 단청 작업이 끝났는데도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른 사원의 단청작업이라도 맡아 하는 것도 아니었다. 천추사원의 단청작업까지 끝내고는 그때부터 들어앉아 이상한 그림이나 그려대었다. 여권의 연장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그저 고개만 주억거렸다. 그때마다 답답해 일어서 버리곤 했는데 그래서 한동안 뜸했었다. 아랫사람을 시켜 양식과 용돈을 보내곤 했었는데 이쯤해서 들여다보고 결판을 내야 할 것 같았다.

한동안 보지 않았던 길옆 가로수들 잎에도 물이 올랐다. 처음 이 터를 보러 올 때는 길도 없는 버려진 땅이었다. 잡풀이 무성했고 돌멩이 밭이었다. 채소 한 줌 키워먹을 수도 없는 땅이었다. 그 땅을 구해 일구었다. 텐트 하나 쳐놓고 눈만 뜨면 곡괭이와 삽을 들고 나섰다. 터를 개간하는 데 꼬박 반년이 걸렸다. 서울 본사에서 윗분들이 와 보고는 될 것으로 보이지 않았는지 성지 구경 타령이나 하다가 돌아가 버렸다.

그래도 신심을 잃지 않았다. 여기에다 수행의 쌍수(雙修), 합일(合一)을 이루어낼 전당을 짓고 말 것이었다. 어떤 종파든 이곳으로 와 하나가 되는 세상을 만들 것이었다. 아버지는 본시 전매청 직원이었다. 결혼하고 난 뒤 출가했다. 독실한 불자였던 어머니 때문이기도 했다. 둘째 아들이 열한 살에 급사했는데 어머니는 그때부터 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절에 살다시피 했다. 신앙은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이었다.

어머니의 신심에 감동한 아버지도 절에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출가하고 말았다. 설마 남편이 출가하겠느냐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그 후 아버지의 장애(障礙)가 되고 말았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아버지는 너무 맑고 깨끗한 모습이었다.

그는 어쩌다 집에 오면 예전의 아버지답지 않았다. 몸이 약해 병치레를 자주 하긴 했지만 털털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완전히 결벽증 환자로 변해 있었다. 먼지 한 톨을 보지 못했다. 감나무가 마당에 있었는데 잎이 떨어지면 그때마다 비를 들었다. 부정한 것을 보지도 않으려 했고 어머니와 한방에 들지도 않았으며 농도 하지 않았고 손도 잡지 않았다.

도대체 절간 생활이 어떠했기에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싶었다. 하긴 늦은 출가이긴 했다. 올깨기도 아니고 늦깨기다 보니 절 생활이 힘들었을 것이었다, 더욱이 큰스님을 모셨다고 했으니 절간의 엄격한 규율에 시달렸을 것이고 청정함이 몸에 뱄을 것이었다.

그렇다고 스님 된 것이 무슨 높다우한 벼슬이나 한 것처럼 군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스님이면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 표정이었지만 아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느 날 보았다. 불 꺼진 방에서 홀로 울고 있던 어머니를. 아버지가 내민 이혼장. 그동안 아버지가 왜 집 출입했는지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그날 온전한 비구가 되고 싶어 하는 아버지와의 이혼장에 도장을 찍어 주고 울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아버지는 한 번도 집을 찾지 않았다.

나중에 깊이 생각할 나이가 되자 참 어설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구가 비정(非情)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깨닫기 위해 출가를 했기 때문이다. 조상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그렇게 사가의 일체를 버리고 떠난 몸이다.

하지만 그가 어설픈 비구가 아니라면 어머니 손 한 번 따뜻하게 잡아주면 어디가 덧나는가. 부처님도 깨달은 뒤에는 고국으로 돌아와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다는데 규칙이 그렇다고 해도 그렇다. 비구가 못 되면 비구가 아닌가? 아니라고 하면 그 또한 굴레에 갇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비정하게 굴 것이 무엇인가? 그가 위없는 큰스님이 되었다고 한들 싶었다. 사랑하는 이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구하겠다? 세상을 구할 깨달음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얻어지는 것일까? 그렇게 얻은 깨달음으로 누구부터 구해야 하는가? 나와 너라는 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부처는 물 건너간 것일 터이다.

결국 세상을 위한다고 하지만 저 좋자고 하는 독각(獨覺)이 아니고 무엇인가. 진정한 보살을 내가 깨닫기 전에 지옥 중생이 있다면 그부터 구해야 한다. 그것이 구경(究竟)이다. 보살의 구경이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핵심이 아닌가?

그때 사랑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사랑과 자비가 어떻게 다른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반목이었다. 비구의 비정은 사랑의 극치다. 사랑하기 위해 비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속적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보낸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래, 싶었다. 내가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저 무지다 싶었다. 모르기에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수행하다 위장병이 나 죽었다고 하자 어머니는 기일 때마다 수행하면서 못 먹은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라 차려 올렸다. 스님이 된 후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지도 않은 어설픈 비구가 뭐 이쁘다고 그러나 싶었다. 그래 바로 저것이 사랑의 본모습이지. 깨달음이란 병에 걸려 어설픈 비구 짓이나 하다 죽은 아버지. 그 아버지를 위한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

나중에야 알았다. 그 맹목적인 사랑이 깨달음의 요체라는 것을. 그러므로 그것은 비구라는 굴레에 갇혀 사랑을 모르는 아버지의 무지를 덮었다. 〈계속〉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현대불교신문 NAVER 현대불교신문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2004-8212